제6강 정희성의 「소나기」

(1교시)

소나기

날 기울고 소소리바람 불어 구름 엉키며
천둥 번개 비바람 몰아쳐 천지를 휩쓸어 오는데
앞 산 키 큰 미루나무 숲이 환호작약
미친 듯 몸 뒤채며 雲雨의 정 나누고 있다

나도 벌거벗고 벼락 맞으러 달려나가고 싶다

1. 정희성에 대하여

1945년 경남 창원 출생. 아버지가 공무원인 관계로 여러 곳을 전전하며 성장. 서울의 용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문학과와 동대학원 국문학과 석사과정 수료. 졸업 이후 줄곧 고등학교 교사로 봉직했다. 197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 시집으로 『답청』(1974),『저문 강에 삽을 씻고』(1978),『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1991),『시를 찾아서』(2001). 김수영문학상(1981), 만해문학상(2001) 등 수상.

2. 시련의 1970년대와 한 서정시인의 변신

- 문학이 현실참여를 외쳐야했던 이유
- 미적 감성보다는 현실적 고발의 자세가 필요
- 이 시기 정희성의 시도 현실참여의 자세를 갖출 수밖에 없었다.

3. 시대의 변화와 시의 변화

-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전개된 민주화
- 시인의 당면 목표는 문학 자체로 돌아와야 했다.
- 서정과 인간 본연의 실체

4. 정희성의 「소나기」에 나타난 '몸의 발견'

- 천둥, 번개, 비바람에 대한 재인식 : '환호작약'
- 천지의 만남 : '雲雨의 정'

*cf. 雲雨之情 : 雲雨는 남녀간의 애정을 나누는 행위를 비유한다. 그러므로 운우지정은 남녀간에 육체적으로 어울리는 사랑이다.

- 시대적 의미와 의무에 얽매이지 않는 인간 본연의 순연한 사랑과 의지를 표현.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5. 참고문헌

김　현,「숨김과 드러남의 변증법」,『문학과 유토피아』, 문학과지성사, 1980
권영민,「정희성론」,『한국현대시연구』, 민음사, 1989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